

사 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왕곡마을 전통 민속체험축제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그동안 가을철에 해오던 행사를 무더운 한여름철로 변경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도 잘 치러졌다는 평가다.

왕곡마을은 외양간이 부엌안에 같이 있는 형태의 북방식 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됐다.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기와와 초가지붕을 정비하는 등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건축물의 외형을 보존하는 데 그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곡마을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물의 외형 보존과 함께 이곳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보존이 될 것이다.

수십년전만해도 왕곡마을 사람들은 가마솥에 나무로 불을 때서 밥을 해먹

고, 대형 가마솥에 여물을 끓여 소를 먹었다. 겨울철에는 소 여물을 먹인 뒤 잔불로 가마솥을 대피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했다. 부엌과 외양간은 여물통을 기준으로 구분될뿐 같은 공간에 존재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면 소가 먹는 여물

이 밥상으로 튀기도 했다. 부엌에서는 닭들도 함께 생활했다. 왕곡마을의 닭들은 저녁이 되면 스스로 부엌으로 들어와 여물통을 중간 다리 삼아 2~3번만에 부엌 천정에 매달린 닭장으로 날아올라 가서 잤다. 닭들은 모두 방목을 했지만,

알을 낳을 때는 외양간 위에 걸려있는 '닭둥지' 에다 알을 낳았다.

또 모내기를 하거나 지붕에 이엉을 올릴 때 '뽕앗이' 를 했으며, 겨울철에는 벼단을 우마차에 싣고 공현진으로 가서 멧태 등 물고기와 물물교환을 했다. 여인

네들은 한시간 이상 걸어서 간성장까지 나가 침 담근 감을 내다 팔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했다. 송지호 바다까지 걸어가 해초를 걷어와 가시리목을 만들어 간성장에 내다팔기도 했다.

이런 전통적인 생활상은 이제 왕곡마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왕곡마을이 민속체험마을로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생활상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왕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전통건축물에 주민들의 삶까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면, 왕곡마을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욱 빛날 것이다.

왕곡마을의 진정한 보존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히늘 땅 바다를 일본인에게 물어본다

하늘의 역사(役事)이다. 운명이다. 하늘이 동경대지진과 후쿠오카 지진을, 다음은 무엇인지 기다려야 한다. 행과 불행은 자신이 만들고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하늘의 역사를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리 오너라, 앞드려라, 누워라, 거두어라' 모두 끝나는 명령에 불복은 없는 것으로 모두가 아는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프랑스 루이14세도 로마의 네로도 소련의 스탈린도 악명 높은 이름이 있든 없든 알려지고 있든 없든 간에 저주의 대상이 아니던가.

죄는 입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쳤을 때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금언을 야욕이 눈을 가려 보지 못하는 도주 종씨 종정성을 이어 종의지(최윤길 등 사신은 조종선물 공수표 받음) 등은 조공을 바치고 답례로 쌀 콩 곡물을 받아가는 관계이다.

이를 기회로 왜구의 소굴이 되어 좁도둑을 비롯하여 야욕을 버리지 못하자 세종 원년 기해동정하여 부분 토벌 후 그해 6월에 회군하였다는 것,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임진왜란의 교활한 두목, 병으로 사망), 이토오 히로부미침략자 원흉은 메이지에게 물어 보렴.

울릉도 방문하겠다고 국제공항에 오신 손님 세분, 신도 요시타카, 아나다 도모미, 사토 다사히사 너희는 일본인에게 물어 보렴. 우리에게 역사토론회를 제안해 오면 이야기거리가 되겠으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약간 골라 행하는 못된 일만 찾는질이 떨어지는 후예라고 자초함이 될 것.

땅의 역사(役事)이다. 제국주의다. 국가가 영토 세력범위 확대를 목표로 행하는 활동과 술책으로서 타 민족에게 압박 슬픔

을 안겨준 위령이 아닌 제국주의자들이다. 누구일까? 추축국인 일본인 장본인들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 자본의 독점이 발생해 자본수출이 왕성해진 단계인 19세기말부터 식민지획득을 위하여 전쟁에 나섰다. 국내에선 반동정치인 군국주의를 국외서는 식민지 지배와 억압을 강화하여 인류를 괴롭힌 후예임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자중자제 자숙하여 경거망동을 삼가근산하고, 헛말을 거두는 것이 사리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너희, 선인들의 잘못을 안다면 빨리 거두어 너희가 깨달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제국주의론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에린은 사회경제학 저술에서 종래의 제국주의론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최후 단계를 제국주의로 보고 이의 사회 경제 정치변혁을 1917년에 논하였다. 식민지주의는 이민 토지를 영토화하려는 술책이다.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위주로 하는 사상이다. 이 궤책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가. 독일, 이탈리아에게 묻고, 중국에게 필리핀에 미국과 피해당사자와 영토확

술 대화에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일본인의 바다 역사(役事)이다. 그대들이 저지른 위대한 선물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인류에 대한 범죄의 징표이다. 너희에게 이 전범의 역사를 묻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만 나쁜 짓 말고 사람노릇하며 탐욕 야욕과 질투를 거두고 그만 괴롭혀라. 이제 구남 악성, 독성을 품지마라. 지진 단속이나 바닷물 단속이나 하렴. 꼭 알고 싶으면 이 역사를 중국에게 월남에게 필리핀에게 이 역사를 물어보라. 나아가 국제연합에게 세계인에게 물어라. 이제 그만 노력질 약탈 강탈은 임진왜란 한일합방 침략야욕을 잔뿌리를 빼어버리고 살길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너희 땅 히늘 바다 잘 다스려 재난을 제로화하는데 힘쓰고 작은 북 털어버리지 말고 이웃 사이에 오순도순 사는 것이 어떠하겠나. 좋을 때 좋게 지내고 나쁜 때를 잊고 사는 일이 오늘의 인류 숙명이라, 우리 말 너희 말엔 남의 떡이 크게보인다는 말이 있다. 양심을 밝히는 지혜가 있고 인류 에겐 인간이란 정서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만 거두고, 이성을 찾아 함께 더불어 화친 화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늘의 역사, 땅의 역사, 바다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자. 사람은 남의 잘못은 많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잇는다. 남의 욕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릇된 점만 눈을 밝힌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과제를 안고 헤어나기 어렵다. 이웃과 화친하지 못하여 욕심이 부풀어 죄를 만들고, 죄가 중첩되어 자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종종종 보아왔다.

술책을 토론하기 전에 중국에 물으면, 나쁜 자손, 러시아에 물으면 글썽, 필리핀에 물으면 x x x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 물으면 제국주의 전범자 자손이라고 딱치라고 힐책할 것이다. 세계인은 인류를 배신하는 역도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

일본인 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또 있다면 이제 애국심 아닌 탐욕이므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들 하지요. 주장하면 다 주장이 아니니 삼가게 하는 일본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탕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천방지축이요, 기고만장이라 누가 말리리오. 내가 말리라다.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으로 x x x 짐승을 몽둥이로 달래보자.

현재 주민주택 건축은 물론 이 기외해 삼척 임원에서 독도와 울릉도와 포삼권역(포항, 삼척 권역)으로 해에서 출렁다리를 놓아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할 수 있도록 '동해특별권역'을 설정하고 국민의 지혜가 집약되어 지금 곧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편집국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된 간성을 해상2리가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팔음장수춤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본래 노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 교육에 30대 주부도 참여하면서 신규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김민희 강사에 따르면 도시에서는 주로 몸매 관리나 취미활동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건강을 목적으로 배우는 게 인상적이라고 한다. 팔음장수춤 같은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